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5. 15 ~ 2022. 6. 4 제265호

## “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최근 전 세계 자유주의국가에서 동성애 찬반 논쟁이 극심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설교로 성도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목회자들이여,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적 설교를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박사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급진적인 성소수자(LGBTQ+)의 논점들에 세뇌되고 있다며, 이러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자

신에게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상처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 여러분이 과거에 설교단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이해한다.”며 “그 누가 말벌집을 건드려 동성애 혐오자나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려 했겠는가?”라며,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이처럼 어려운 문화적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논쟁과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설교자가 명확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편하겠지만, 우리는 상처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유치원생에게 “네가 잘못된 신체에 갇혔을 수도 있다.”는 내

용의 동성애 이념을 가르친 사례를 인용하면서 “유치원 측이 아이들에게 파란 크레용처럼 느껴지는 빨간 크레용에 대한 책을 읽어주고, 그 아이들도 잘못된 몸에 갇힐 수 있다고 이해하도록 했다. 그런 일들이 부모가 알기까지 몇 주 동안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사연들이 끝이 없다며,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의 이웃이며, 가족이나 성도 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동성애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자살을 할지, 동성애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신이 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성경적, 문화적 문제를 설교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과감히 실행해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의 이웃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치유를 시작하자.”고 권면했다. [GNPNEWS]

### Interview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서울대학교회)

## “좌편향된 한국사회,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복돼야”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약속한 월요일 점심시간에 서울대 교내에서 후배들과 찬양예배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그의 삶의 한 단면을 가늠케하는

일정으로 만남은 이날 오후 서울대입구역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있는 트루스포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젊은이들이 복직일 것 같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역사와 정치, 세계관에 관한 책 등이 들성들성 채워져 있었다. 요즘의 근황을 나누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 4면에 계속



▲ 2018년 인천퀴어축제 반대 시위 현장. © 현승혁

### 마음의 눈을 밝히사 (49)

##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주 호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드러나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수억 조의 별을 만들어내고 바다와 대양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에게 한낱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어마어마

한 약속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그 집안에 자손이 너무 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를 낳았고, 이삭도 아이가 없어 간절히 기도한 끝에 간신히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게 다였습니다. 그중에 장남인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야곱 하나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라헬 한 여자만 사랑했습

니다. 그런데 장인 라반에게 속아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그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아기 낳기 경쟁에서 두 여종까지 가세하여 부인 넷을 통해 아이를 낳았지만 고작 열둘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삼대째 야곱에 가서야 다해봐야 열두 아들을 낳아 나중에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일러스트=김경선

님은 이들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민족이 그냥 숫자만 많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

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믿음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을 믿음만 남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전혀 다른 삼대가 똑같이 오직 믿음만 결론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루신 것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가정의 달 맞은 이슬람국가 A국의 교회주일학교 풍경



제공: 알마스

**5월**은 어린이날을 포함 가정 관련 행사가 많은 달이다. 인구의 80%가 무슬림인 중앙아시아 A국의 교회에 가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사진은 부활주일을 맞은 벤엘교회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다. 예배당 뒤편에서 누나와 형, 언니와 오빠를 바라보는 어린 유아들은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하다. 또 앞에서 젊은 선생님들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현대적 주일학교운동은 영국

의 한 신문 발행인이었던 로버트 레이크스(1735~1811)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어느 날 슬럼가를 지나다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죄수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순화교육을 했다. 이후 그는 범죄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길거리를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모아 1780년에 주일학교를 시작한다. 옷과 신발을 나눠주고, 세수하기, 머리빗기, 싸움하지 않기, 시간 지키기, 어른에게 순종하기 등을 가르쳤다. 3년 동안 가르치며 아이들의 변화를 경험한

그는 자신의 신문에 1783년 11월 3일, 그간의 주일학교운동 결과를 실었고, 이를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하면서 큰 반향이 있었다. 1785년에 25만 명이던 주일학교 학생 수가 1801년에는 30만 명, 1821년에 73만 명, 1831년에 125만 명, 1851년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성경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신 11:19~21)고 말씀하신다. [GNPNEWS]

고령의 라오스 전도자, “라오스 기독교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오스 기독교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최근 공산국가 라오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해온 한 고령의 전도자가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101세로 추정되는 라오스 교회의 원로 분센(Bounsaen)은 청년 시절, 애니미즘(정령숭배 신앙)을 믿는 주술사였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싫어했던 그는 기독교인 여성 팀(Term)과 교체하면서 그녀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분센은 70년대 공산주의 ‘파테트 라오(Pathet Lao)’ 반군과 라오스 황실 군대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아내가 살던 움준 마을 기독교인들과 계속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 동안 내전은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파테트 라오’의 정당인 ‘라오스 애국전선’은 1975년 집권한 후, 자신들이 장악한 나라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십 년간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주민들을 가혹하게 핍박했다. 분센은 “당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부인했다. 당국자들은 학교 같은 건축 현장에서의 노동을 강요했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말했다. 분센은 1980년 12월에 처음 구속됐다. 3개월 수감되면서 그는 “핍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당시 수감자들에게는 담요나 옷이 제공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도 가족들이 공급해주어야 했는데, 분센은 음식을 가지고 온 가족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 적게 했다. 그는 마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 낙담해 결국 국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까봐 편지를 썼다. “감옥에 있는 동안 두렵지 않았고 경찰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분센은 1980년대에도 목회 사역으로 두 차례 더 체포됐고, 매번 체포될 때마다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10년은 움준 마을 교회의 고난의 시기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폐쇄하려 했다.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회는 비밀리에 모였다. 매주 교인들은 마치 숲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같이 가방을 메고, 시간 격차를 두며 마을을 출몰했



▲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전하는 라오스 교회의 원로인 분센. 제공: 한국 순교자의소리

고, 몇 갈래 다른 길을 이용해 예정된 모임 장소로 이동했다. 교인들은 마을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을 정기적인 예배 장소로 선택했으나, 특별히 기념할 일이 있을 때는 밀림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다 1983년 말, 분센은 교회 지도자 몇 명과 함께 지방 주지사를 찾아가 그들의 새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들의 요청을 마지못해 승인했고, 교회는 공산당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계속 성장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분센이 이끌었던 교회는 100년 가까이 되면서 현재 교인이 500명이 넘는다.

이제 거동이 불편해진 그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삶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에게 ‘라오스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동부 아프리카, 최악의 가뭄으로 2000만 명 기아 위기 직면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케냐 북부와 소말리아까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걸쳐 20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최근 뉴스1이 AFP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 지역은 3년째 가뭄을 겪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인구의 40%인 600만 명은 극심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고, 에티오피아는 650만 명, 케냐는 35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주리고 목마른 이들을 양떼와 같이 돌보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프리카의 극심한 더위 가운데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수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갈급한 영혼의 갈망을 더욱 채워주십시오. 고통과 환난 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프리카를 회복시키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中, 온라인 기독교 지속적 탄압... 21년 운영된 기독교 웹사이트 폐쇄

중국에서 21년간 운영돼 온 기독교 웹사이트가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폐쇄됐다고 지난달 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고, 인터넷에서 종교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모든 종교단체의 허가를 의무화했으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 등록할 수 없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9700만 명이 넘는 중국 성도들을 기억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기꺼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중국의 거센 탄압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가 더욱 흥왕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3세부터 실시되는 ‘조기성애화’ 성교육... “결코 대한민국 교육 모델 될 수 없어”

사단법인 크레도가 최근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조기성애화 조장하는 문화막시즘’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3세부터 조기성애화를 위한 현행 국내 성교육은 결코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성교육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3세 이상의 유아부터 동성결혼,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학생 인권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를 파괴하는 거짓 사상과 왜곡된 교육 정책들을 파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타락한 성(性) 관념이 사탄의 것임을 밝히 알려주시고, 자멸할 결과에서 건져주십시오. 복음으로 이 땅을 밝히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5월 16일 ~ 2022년 6월 4일

**5월 16일 ~ 5월 21일** ▶ 두미교회 / 경남 통영(이\*\*)010-4734-8567, 5.16~20(10~17시) ▶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5.16~21(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17,19~21(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5.19(0~24시) ▶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5.19(18시)~21(18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5.20(13~16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5.20(0시)~21(24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그 외 5교회 진행중.

**5월 23일 ~ 5월 28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5.23(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23~26(11~26(10~16시) ▶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5.23~27(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24(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5.24,26~28(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5.27(10~16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그 외 4교회 진행중.

**5월 30일 ~ 6월 4일** 5.30(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6.2(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6.3(10~16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3~4(13~16시)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한국교회

## 지는 것을 알고도 뛰어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에 이어서 무력을 사용한 그들의 폭력적 행태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커다란 혼란 가운데 있다. 그 땅을 미처 못 벗어난 이들은 다시 예전의 원리주의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간신히 피난길에 오른 대 행렬은 세계 최대의 난민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가지고 올 작지 않은 파장에 대해서 그 땅을 사이에 두고 인접 국가 사이에서 벌써 치열한 외교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국제 외교에서 득과 실을 논하면서 세계의 관심이 이 지역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국민이 시리아 난민에 이어 지금 세계 최대의 난민이 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가 우려와 안타까움의 눈길로 저들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감당해 온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을 향해 막대한 물자와 재정, 그리고 20만 명에 가까운 미군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얻은 것은 고작 반복된 역사의 쓰라린 교훈뿐이다. 그 땅의 진정한 자립과 자전, 그리고 자치를 바랐던 미국이건만, 그러기에는 너무 무능했으며, 아프간 정부의 끊임없는 부정과 부패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 아무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엉켜진 실타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하려면 먼저 ‘듀랜드 라인(Durand Line)’을 이해해야 한다. 듀랜드 라인은 약 2640km에 이르는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을 말한다. 듀랜드 라인은 1893년에 영국령 인도 제국의 외무 장관이었던 모티머 듀랜드(Mortimer Durand)와 아프가니스탄의 국왕 압두르 라만 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듀랜드 라인은 1800년대 영국과 러시아 간에 수십 년간 이어졌던 ‘그레이트 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영국과 러시아의 상호 갈등이 계속되던 중, 1877년 영국이 인도 제국을 영국령으로 선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우위를 선점한다. 러시아는 방향을 돌려 만주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당시 만주 지역에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이에 반발하여 러일전쟁이 발생한다.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미국과 영국은 일본군을 지원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군은 길고 긴 영국과의 세력 확장 싸움을 이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이에 고무된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확실히 점령하고자 전쟁을 벌였지만 1차 전에서는 패배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하여 압두르 라만 칸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아프가니스탄 국왕으로 앉히게 된다. 압두르 라만 칸은 영국령 인도 제국이 요구한 대로 불평등한 조약

에 순순히 응하고, 듀랜드 라인이라는 국경선이 그어지게 된다.

1947년 2차 대전 종식과 더불어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는 끝나고, 영국령 인도는 인도공화국, 파키스탄, 미얀마 3개의 국가로 독립하게 된다. 파키스탄은 듀랜드 라인을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선으로 계승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조약 당사국이었던 ‘영국령 인도’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게 된다. 듀랜드 라인으로 인해 졸지에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3분의 1이 파키스탄 소유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토착민 파슈툰족의 절반 이상이 파키스탄 국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듀랜드 라인과는 상관없이 파슈툰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끈끈한 동포애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파슈툰족은 언제나 서로 도우며,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과 관련된 위험인물들도 동포라면 얼마든지 숨겨주고, 무기도 옮겨주고, 그렇게 평화롭지만 평화롭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

## 현대사 속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부동항을 원하던 당시 구소련의 인도양 진출로에 걸려져 있었다. 구소련은 대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아프가니스탄 군부는 구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1978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정권 수립에 성공하지만, 당시 아프간 주민 대다수가 이슬람 수니파였던 주민의 반감을 사게 된다. 이에 수니 무슬림 부족을 중심으로 소련의 공산정권에 저항하는 내전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공산정권에 저항하는 반군 게릴라들을 이슬람의 전사라는 뜻을 가진 ‘무자헤딘’이라 부르게 된다.

탈레반의 종족으로는 인도계 파슈툰족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40% 정도를 차지하는 이슬람 수니 무슬림이다. 탈레반이라는 말은 이슬람 신



▲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넘는 아프간 난민들. 출처: voj.news 캡처

학생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오사마 빈 라덴이 제공하는 막대한 재정에 미국으로부터 구소련 타도를 위해 이미 받아 놓은 강력한 무기, 그리고 여기에서 지하드 정신으로 뿔뿔 뭉쳐서 자살폭탄도 불사하는 강력한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부상하며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다.

## 다시 시작된 긴 난민행렬

이번 사태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가 머지않아 시리아 난민의 수를 넘을 것이다. 이미 과거 수십 년 동안 발생한 내전 등으로 주변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아프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인데 이번 사태로 더 증가할 아프간 난민으로 지금 전 지구촌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다.

지금 중동 이슬람권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이념과 종교적 갈등에 따른 충돌은 무자비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들의 발생은 셀 수 없는 끔찍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뒤따른다. 어떤 지역에서는 난민 문제로 말미암아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를 초래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난민들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 뒤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지역에서 난민의 이동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 한국교회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구촌 곳곳

에서 기아 문제에 대책을 마련했으며, 국내로 유입한 이주민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보여 왔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고적한 삶을 지속하는 난민들을 향해서도 선교적 관심을 보여 줘야 할 매우 시급하고도 절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녹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외에서 이미 커다란 정치 외교적 사안으로 자리 잡은 난민 문제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어느덧 우리의 이웃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우리는 지금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비롯한 지구촌 수많은 난민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누가 복음 10장 25~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려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들을 지금 즉시 도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도 우리의 이웃이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단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한국교회의 마땅한 도리이다. [GNPNEWS]

김종일 교수(아신대 ACTS 중동연구원 교수)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출선 아프간 여성들(좌)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처: 유튜브 채널 UNHCR / 울산매일 UTV 캡처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처: 유튜브 채널 UNHCR / 울산매일 UTV 캡처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적 세계관으로 진리를 외치는 김은구 대표 (트루스포럼)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트루스포럼 대표로 청년들과 함께 기독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잘못된 관점을 일깨우며 내일의 한국사회를 섬길 다음세대를 세우고 기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국제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그동안 단체 활동에 집중하느라 아직 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님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군요.

“4대째 모태신앙이고 걸로 드러나는 큰 일탈은 없었지만 정신적 방향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나의 문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의 원인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변호하는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더군요. 정신적 방향을 하다가 서울대학교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이성적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안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경험한 일들이네요.”

4대째 모태신앙... 20대 후반에 하나님 경험

- 20대에 그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군요. 그 이후엔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병역특례로 넥슨(Nexon)에서 근무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30대 초반에 게임 사업을 하게 됐어요. 원래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려 했던 탓인지 그런 일에 흥미가 있었어요. 게임 하면 중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만든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됐어요.”

- 주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상황이 어려우니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고민하면서 신학을 해야 하나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죽고 싶은 마음은 부정적 에너지인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외하게 된 것 같아요.”

-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셨군요.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무렵 하나님이 괜히 서울대 법대에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김보미 학생 사건이 터졌어요.”

- 어떤 사건인가요?

“2016년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학생인데, 그해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이 일을 보면서, 제가 전공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대응할 필요를 느꼈어요. 2001년도에 동성애자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2001년에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졌고 동성애 이슈를 인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2002년엔 한 레즈비언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드셨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성애를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을 알게 됐고,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국제법은 여전히 과거의 논의에 기반해서

동성애자 총학생회장 등장, 한국사회 문제 인식

- 트루스포럼의 시작도 그 무렵쯤 되겠네요.

“대학원에 다시 들어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가 터졌어요. 2016년 2학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당시의 많은 주장들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과 가설, 거짓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혼자 대자보를 쓰게 됐어요. 사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건, 서울대 운동권 선배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었기 때문입니다.”

-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었나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권 선배들을 보면서 참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사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하시는데, 뒤에서 한 학생이 ‘아닙니다. 남한의 북침입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학생의 태도에도 놀랐지만, 당황한 교수님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또 우연히 선배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한 선배가 빨치산 출신 선배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혁명이란 게 이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6.25때 북한군이 짧은 시간에 낙동강까지 내려간 것처럼 결정적 순간이 오면 혁명도 불현듯 이뤄진다.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는 북한의 전쟁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옳은 결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또 입학식도 하기 전에 법대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배들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토론을 시켰어요. 지금 보면 운동권 의식화 교육이었죠. 96학번인 제가 학교에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도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운동권의 대학 문화가 21세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 놀라우면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런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례로 보리스 옐친 러시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교류를 재개하면서 6.25 당시 소련의 극비문서들을 한국에 선물로 줬어요. 그 자료들은 남한의 북침설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어요. 6.25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남침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무척 기뻐요.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서 괴로웠는데 진실을 확인하고 나니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논란이 정리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과거에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사과하고 반성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말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더 나아가 김일성을 옹호하면서 ‘러시아 문서를 보니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남한의 해방을 위해 스탈린을 2번이나 적극적으로 설득한 민족의 주체적인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 왜 이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광우병 사태와 미네르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특히 미네르바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정치 논객 박대성 씨가 구속되어 있을 때 20대 청년들이 찾아가 자살을 강요했어요. ‘당신이 지금 자살하면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당신은 열사가 되는 거다.’라며 설득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엔 진실보다 거짓말로 나라를 뒤엎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자살을 강요하는 운동권 실체

-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냥 지켜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 정황을 알고 있으니 탄핵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선명히 보였어요. 언론도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법률가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습니

다. 그래서 대자보를 붙였어요.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고맙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치적 판결로 끝이 나더군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대학 자체가 좌편향돼 있는데, 진실을 말하는 창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트루스포럼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트루스포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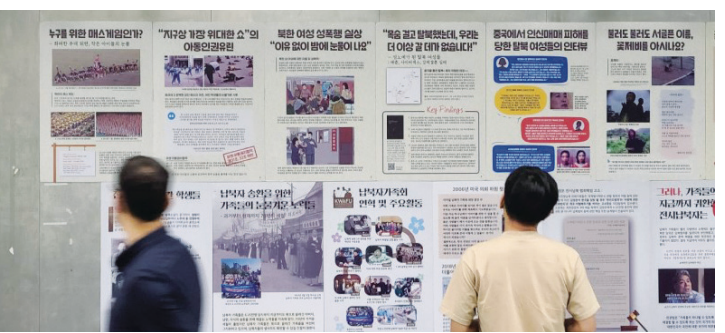
“대학 때 경험했던 운동권 학생들 중에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결국 자유주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20대에 정신적 고민은 그런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운동권 선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정의로운 활동으로 포장했죠.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대에 했던 고민의 뿌리들이 모두 왜곡된 신학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동성애 이슈의 배경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자기 의로 대치시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걸 결국 사탄의 전략입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위험한 것은 그 본질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과 자기 의로 재단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단순히 동성애, 차별금지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재단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는 특히 쿼어신학으로 정리되고, 쿼어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재단해서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죠. 저는 유럽 교회를 무너지게 했던 동성애 문제와 쿼어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사회도 무너졌는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한국교회에 맡기셨다고 봐요.”

-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잘

• 5면에 계속



▲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붙여진 북한인권 포스터 전시회. 제공: 트루스포럼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동성애 합법화 운동에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아직 뜻을 이루지는 못했네요.”

닐 때에도 80년대 운동권이 학생회를 장악했어요. 그들은 전투적 학생회를 표방하면서 학생회를 운동권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때 갖춰진 학생회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

기획 | 창조 이야기 (71)

# 진화론에 사로잡힌 세계관, 잔혹한 전쟁포로 실험 낳았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켈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은 나쁜 나무와 같다. 나쁜 뿌리를 가지고 있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진화론은 비도덕성의 기초이고, 인본주의와 인종주의의 기초다. 또한 나치주의의 기본 철학이다.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인이 세상을 지배하기 합당한 우월한 종이라고 생각했다. 독일도 동일하게 생각했기에, 그들은 한동안 동맹 관계였다. 무솔리니와 아돌프 히틀러는 진화론의 강한 신봉자였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세계를 지배할 가치가 있는 더 우월한 종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가 1924년 감옥에 있을 때 쓴 책 '나의 투쟁'은 진화론으로 가득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진화로 인해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

월하다.'는 이 한 가지 생각에 지배를 받았다. 또 그는 "자연은 더 이상 약자와 강자의 교배를 갈망하지 않으며, 고등 인종과 하등 인종이 섞이는 것은 더욱더 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그가 주장하는 '아리아인의 피가 하등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라는 개념은 모두 진화론에서 나온 것이다.

### 히틀러는 진화론적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히틀러는 이렇게 가르쳤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노르웨이인은 순수 아리아인에 가깝다." 그는 독일은 거의 아리아인이고, 지중해 인들은 약간 아리아인, 슬라브족은 반아리아인, 반유인원이며, 동양인은 약간 유인원이고, 아프리카 흑인은 거의 유인원이며, 유대인들은 순 유인원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의 진화론적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약 1억 5000만 명 정도(공식 집계: 5000만

~7000만 명)가 죽었을 것이다. 바보 같은 진화론 때문이다. 대학살 때 살아남은 한 유대인 포로는 "동료 인간을 같은 창조자의 같은 창조물로 보는 사람들과 그들을 생물학적 화학적 복합체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진화론은 학문적 토론이 아닌 위험한 철학이다

이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한 히틀러의 믿음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한 철학이다. 히틀러는 '생물학적 진화가 전통적 종교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는 기독교를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치명적이고 유혹적인 거짓말이라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히틀러가 한 모든 것은 반 기독교적이었다. 히틀러는 그가 십자가를 머리 위에 올리고 교회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은 나치 선전 사진을 이용했



▲ 1944년 봄, 체코 동부에서 붙잡혀 아우슈비츠로 보내진 유대인 여성과 아이들. 출처: 위키미디어

다. 다 선전용이었을 뿐, 그는 기독교를 미워했다. 나치는 종교다. 나치 세례와 나치 제단이 있다. 히틀러는 "거짓말을 큰소리로 충분히 자주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했다.

일본인들도 자신들이 더 진화했기 때문에 더 우월한 종이라고 생각했다. 다윈의 책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때 일본에 있었던 미친 종교들이 진화론을 그들의 사상 속으로 바로 흡수시켰다. 그다음 단계는 '진화론이 진실이라면 어느 인종이 가장 많이 진화했는가?'였다. 일본 과학자들은 어느 인종이 털이 적은지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일본인이었다.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진화했다." 그들은 일본인들이 더 많이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과학 연구를 했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포로들이 붙잡혀 '바탄 죽음의 행진'이 일어났다. 바탄 죽음의 행진은 1942년 4월, 일제 포로가 된 필리핀 주둔 미 극동지상군의 강제 이송작업이다. 일본군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못한다. 그들은 평생 동안 진화론을 배웠다. 그들은 "우리는 더 많이 진화했고, 이들은 열등한 종이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놀랍도록 잔인할 수 있었다. [GNPNEWS]

• 4면에 이어 Interview

## 트루스포럼 공식회원 1300여 명... 건강한 문화로 탄탄한 사회 꿈꿔

막아내 왔어요. 계속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동성애 이슈가 어찌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주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동성애 문제에서 침묵했기 때문에 신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어요. 한국도 그대로 침묵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재단하는 도를 넘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는 숙제를 한국교회에 맡기셨다고 봅니다."

- 트루스포럼이 이런 시점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기시는군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허락된 다양한 도전을 통해 깨닫게 된 영역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좌익 민족주의사관들이 수면 위로 드

러나게 됐어요. 또 동성애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런 사상을 부추기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래된 죄악의 뿌리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들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이 잘 나서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 해방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도록 이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위험한 상황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만약에 문이 열려도 더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 구체적으로 트루스포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트루스포럼이 대통령 탄핵사태를 기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 이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나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몇 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



▲ 지난 4월 13일, 국회 소동관에서 차별금지법 강행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트루스포럼. 제공: 트루스포럼

어요. 다섯 가지로 정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동맹, 탄핵사태에 대한 문제점 인식,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트루스포럼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단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인지 외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교회 안에 뿌리내린 왜곡된 복음들이에요.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의 흐름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야 해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막시즘 모두가 답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와 국가를 지지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용을 지켜서 조화로운 결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해요. 애초에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상화하면서 그들을 본받아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올바른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이 시대에 깨닫게 하자는 것이 트루스포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 트루스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얼마나 되나요?

"공식 가입한 회원은 1300명 정도인데, 그중 청년들은 500~600명이예요. 그러나 저희 단체와 한번 이상 접촉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4~5만 명 정도 돼요."

[GNPNEWS]

C.K.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복음의 능력

### 사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

아담과 그의 후손을 무덤에서 파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고 "누가 이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잘못을 범했는가?"라고 물어보라. 그 대답은 바로 '죄'이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보라. 또한, 당신의 특정한 죄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모든 경고, 당신의 기도, 은혜의 방편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풍성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당신이 어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죄의 형벌은 사망과 멸망이다. 죄는 지옥처럼 사악하다. 죄는 영혼 위에 그려진 악마의 형상이다. 죄보다 더러운 진흙탕도 없고, 죄보다 불쾌한 전염병이나 문둥병도 없다.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1)

# 복음은 세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이다

육체를 입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팔며 눈에 보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그저 닦친 현실을 급급하게 살아내기 바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나타날 때, 그 세계는 이해불가다. 육체를 입고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들려주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차원의 이야기다.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없었으므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기적과 예언

들을 통해 받을만한 준비가 된 택한 민족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시의 전달자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기시면서 어느 민족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았던 로마나 중국 시안(西安)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언약해주신 유대인들에게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역사 가운데서 먼저 계시하셨다.

주님이 들려주신 천국의 주옥같은 말씀 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 한다. 산 위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교



일러스트=이예원

훈이라는 뜻이다. 주님은 당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던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유대

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국강병이나 태평성대 등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그들의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전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고 불순종할 때는 고생한다. ‘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구나!’라는 것을 육신으로라도 깨닫고 모든 생사화복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 모든 생사화복이 살아계신 주님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기초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복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

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3-5) 이 모든 이야기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였다.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실에만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5-6) (2018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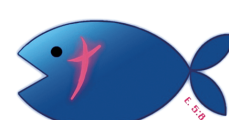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티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삼성연합의원

##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장 35절)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 “함께 해요”

**대상자**

- 목회직: 목사, 전도사로 임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매로 삼성초대교회와 선교동역하실 분
- 전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병사 그 외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문의 ☎ 010-8528-3217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사연을 읽으며 주님의 온기가 내게 스며들었다

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Arise and Shine)”(사 60:1)라는 말씀으로 2020년 5월에 시작한 복음기도 방송사역 단체인 ‘채널앤씨’를 섬기고 있다. 컴맹인 내가 미디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라디오 진행 제의를 받고 막막할 때, 헤브론 선교대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졸업생 나눔을 듣게 됐다.



일러스트=고은선

학생의 고백이다. “세상 학교와는 시작부터 다른 학교였습니다. 세상 대학교는 그만두고 싶으면 휴학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시작한 이 학교는 그렇게 그만둘 수 없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그만둬야 하나.’라는 흔들림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학교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신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셨는

지를 고백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에 세워진 이 학교 졸업생의 나눔이 이런 수준이라니 정말 놀라웠다. 그의 고백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J on air’ 라디오 첫 사연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한 지체의 도움을 받은 로고송과 대본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녹음을 마쳤다. 인터넷 라디오로 처음 공개되던 그날 저녁,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사무실에서, 숙소에서 귀를 기울였다. 간간이 웃음소리도 들리면서 귀 기울여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습이 라디오나 TV밖에 없던 시절에 가족들이 웅기종기 모여 사연을 듣거나 TV를 시청하는 것 같은 모습이 연상되면서 무척 따뜻했다.

지나고 보면 나는 라디오 ‘J on air’의 가장 큰 수혜자다. 2019년 말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허리 통증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사역과

생활이 어려웠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안으로는 계속 끓어 있던 상처가 결국은 터지고야 말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육체를 통해 나를 멈춰주신 것이 참 은혜였고 너무나 정확한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였다. 그동안 라디오를 통해 수많은 사연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그 모든 사연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됐다. 주님의 온기가 나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차갑고 돌처럼 굳어 있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온기로 녹아지면서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됐다. 주님의 온기가 온통 전쟁과 기근과 절망뿐인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녹이고 마침내 새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 [GNPNEWS]

김인애

## 부흥을 위하여

# 北 외화벌이 부업선 조난신고 후 행방불명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함경북도 보위국 소속 외화벌이 부업선이 바다에서 조난신호를 보내고 사라졌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업선은 얼마 전 특별경비주간에 6명의 선원을 태우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지난 20일 새벽 기관에 문제가 생겨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라는 마지막 무전을 보내고 종적

을 감춰 국가보위성이 사건 조사에 나섰다.

초기 조사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배는 도 보위국 외화벌이 사업소가 보내 수산 사업소에서 빌려온 것으로, 이미 노후화된 상태에서 정비도 잘 안 된 채 바다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위국은 현재 이들이 마지막으로 교신하고 행방불명된 곳이 일본과 가까운 먼 바다라는 점에서 배에 타고 있던 6명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보고 받은 국가보위성은 “올해

정주년(整週年)을 맞는 명절 기간에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도 보위국 외화벌이 어선에서 사고가 났다.”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 공무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이번 소

며 크게 화를 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사고의 핵심은 4·25 90돌을 맞으며 도 보위국이 일부 간부 가족들

은 한반도 내 민주적인 책임 규명과 독재 통치 사이의 대결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피살 공무원의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상대로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이 씨는 한국 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은 다음 날인 9월 22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했으나 승선시키지 않고 총격을 가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QA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인가요?

**Q** 이제 60대를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인가요? 요즘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서인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A** 성경은 신자의 고난을 감추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으며 동족 이스라엘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농도의 박해를 받았는데 유대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기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난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을 낳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자범죄와 원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8:11)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죄함 없는 자녀의 생명,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 죄의 대가를 당당히 지불하는 고난의 자리까지도 불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GNPNEWS]



▲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민들. 출처: 데일리NK 캡처

## HRW,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소송… 진실 규명에 도움 될 것

해 살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을 중요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정의 추구가 필요한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가 거듭되면 북한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워버어 가족의 예를 들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출처: 유튜브 채널 KBS News 캡처

북한의 불법 자금과 관련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N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얀 리벤스의 <옴>

고난에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적과 가치를 모른 채, 고통만 당하셨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고난이 또 있을까 싶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모든 고통과 수치, 절망과 저주를 받으셔야 했으니 말이다.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앞서, 억울한 고난을 겪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옴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옴의 친구들에게 수사와 솜양을 그에게 가지고 가라 하시며, 옴이 친구를 위해 번제와 기도를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과 옴이 오버랩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옴은 어떠한가. 렘브란트와 라이벌이었던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얀 리벤스(Jan Lievens)는 옴을 그리면서 그의 무력함을 강조했다. 어둠 속에서 유

난히 하얗게 빛나는 옴의 육체는 그의 의로움을 표현한다. 팔과 다리를 늘어뜨린 옴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왼쪽에는 옴의 아내가 깃털 장식의 모자와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치고 있다. 모자와 목걸이는 지나간 부귀영화를 가리킨다. 오른쪽에는 불을 뿜어내는 두 사탄이 있다. 옴에게는 수치와 조롱, 절망 외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암담한 고난 속에서는 누구의 위로나 조언, 원인 분석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되려 아픔만 더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같으면 그런 신은 안 믿을래.”,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루시나 보다.” 등, 선부른 한마디 조언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기에, 반드시 주께 답을 구하여야 한다. 죄의 다루심인지, 아니면 묵묵히 지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지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후자라면, 현재 고난의 가치, 즉 고난이 우리의 영적 성숙과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게 하길 것이다. 고난이 훈련임을 알 때, 놀라운 새 힘이 생긴다. 옴의 늘어진 사지가 들리면 십자가 형태가 되듯, 고난이 훈련으로 바뀌면, 처절한 자기 부인을 견딜 힘 또한 주신다. [GNPNEWS] 이상운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얀 리벤스, <옴>, 1631, 캔버스에 유화, 171.5 x 148.6 cm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대한민국 건국 정신 밝힌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100년 만에 음악극 통해 재조명



▲ <1919 필라델피아> 공연 포스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토대가 된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대회가 최근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회가 이처럼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당시 3일간 열린 총회의 내용과 그 의의를 음악극으로 재연한 다큐멘터리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 때문이다.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이 공연은 재미교포 150여 명이 참석한 당시 대회 현장을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음악과 함께 무대극으로 재조명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안겨줬다. 이 공연은 최근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와 정신이 정치적 논쟁으로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3.1운동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독립의 정당성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기초를 분명하게 제시한 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연 팸플릿은 “당시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발송된 편지에서 이 필라델피아 대회 참석자들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민족자결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다시 얻어 기독교 민주주의란 기본이념 아래 자유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회가 단지 미주에 있는 교포들만이 모인 초라한 대회가 아니라, 훗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기독교 지도자 등 당시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성공회 사제 톰킨스,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 매카트니, 천주교 신부 딘, 유대인 신문기자 조지 베네딕트, 유대인 지도자 버코비치,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유공자 밀러, 볼셰비키와 싸운 러시아 선교사 출신 샤프트 등이 참석했다. 또 이 대회에 참석해 설교한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담임 플로이드 톰킨스 목사는 훗날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50

여 개 도시에 결성된 한국친우회 전국 회장이 되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모으며 도움을 손길을 제공했다. 또한 이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 유대인 신문기자 베네딕트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색적이다. 베네딕트는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던 서재필, 이승만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상황에 마음이 움직여 이 대회를 열도록 도움을 줬다. 특히 그가 집필한 기사를 통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됐고, 한국에서 자행되던 일본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음악극 '1919 필라델피아'는 이 대회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음악극의 대본을 집필한 이혜경 아트 플랫폼 대표는 “근대 국가가 탄생하는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록으로 남긴 나라는 많지 않다. 실제 이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한 대한민국의 비전은 30년 뒤인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꽃을 피웠다.”고 말했다. 이 음악극은 3일 동안 마련된 6개의 결의문을 극중 주인공을 통해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미주 교포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신봉하는 기독교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선언이다. 둘째, 미국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1882년 맺은 조미조약의 '거조조정항목'을 인용하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하며, 미국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인의 국가에 대한 목표와 열망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나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구성되어 권력을 상호견제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맺으며, 신앙의 자유를 비롯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일본의 지성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일본이 유럽식 군국주의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우호적인 완충국'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000만 우리 민족의 의지를 대변하는 정부로 인정해 줄 것과 우리의 꿈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4. 13 ~ 5. 5 (가나다 순)

**개인**  
강종채 권혜령 김광희 김다경 김문화 김미선 김선희 김숙자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경순 안민자 안수경 오금에 오세주 우 석 윤미자 이귀봉 이미영 이상연 이상현 이영선 이영옥 이주선 이주선 이진희 정금자 정진미 정효신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정옥 최정숙 허슬기 홍교집오경선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팀 복음가득한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생령나무교회 새순교회 시흥교회 안양구터기교회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오예그교회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은혜신일교회 참종양터교회 처음사랑교회 함안순복음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